

온비드 입찰 '국민 재테크' 떠올라

법원 경매보다 안전하고 전셋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도

광주·전남 지난해 2만5천명 이용...무형자산 거래도 급증

월세로 신선생활을 시작한 A씨 부부는 최근 전셋값이 올라 마땅한 전셋집을 구할 수 없어 애만 태웠다. 그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개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인근 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발견하고 현장답사와 정보 수집 등의 발품을 들인 끝에 전셋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

캠코의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입찰참가자가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온비드 시스템 입찰참가자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2만4823명을 기록, 최초로 2만명선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연간 낙찰금액은 3509억2900만원이며,

연간 낙찰 건수도 3924건으로 지난해 3335건에 비해 18%나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찰 물건(낙찰건수 기준)은 부동산(51%)과 자동차·운송장비(18%)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낙찰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매각)이 9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온비드 이용이 급증하는 만큼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낙찰물건 평균 경쟁률은 6.5대 1로 2016년 4.3대 1에서 다소 상승했다.

전남개발공사의 남약신도시 오피스구 단독주택용지가 1070대 1로 광주·전남 지역 온비드 사상 최고 경쟁률을 썼다. 광주 시 도시공사 진곡산단 단독주택용지 분야

공고에서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716 대지가 504대 1을, 캠코 2017년 제21회 국유재산 매각입찰 공고 영광군 연산면 두우리 936, 936-1 대지가 336대 1을 각각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권리·증권 등 무형자산 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온비드 이용자들이 점점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자산 거래는 지난해 낙찰금액 143억3000만원, 낙찰건수 72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611억 원, 665건에 비해 각각 80.7%, 9.7%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온비드 공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규제가 진행된 탓에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몰린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원 경매에 비해 온비드 공매는 물건의 관리관계가 비교적

안전하고 매각예정가격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상당수여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자산 거래시스템임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매 입찰 참가가 땀 물건에 따라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등을 조사한 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온비드 시스템 입찰참가자가 전년보다 15% 증가한 21만8000명을 기록했다. 연간 낙찰금액은 6조5000억원이며, 연간 낙찰 건수도 3만7000건으로 지난해 3만3000건에 비해 12%나 상승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8.54 (+2.08)	↓ 금리 (국고채 3년) 2.25% (-0.03)
↓ 코스닥 908.20 (-5.37)	↑ 환율 (USD) 1071.90원 (+4.00)

쌀·고춧가루·오징어 값 대폭 상승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1% ↑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쌀과 오징어, 고춧가루 등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를 조사한 결과 광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쌀이 25.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공동주택관리비와 휘발유도 각각 9.2%, 3.5% 상승했다.

반면 달걀 38.5%를 비롯해 딸기 32.3%, 학교급식비 29.7%, 수입자동차 2.2% 등은 각각 하락했다.

전남지역은 고춧가루가 53.2%, 오징어 45.9%, 생선회 8.2%, 휘발유 3.0%로 각각 상승한 반면, 토마토 36.2%, 달걀 21.2%, 해외단체여행비 9.1%, 수입자동차 2.8%씩 각각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9%, 전달과 비교해 0.4% 각각 올랐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1.0%, 전달과 비교해 0.5%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은행 상반기 350명 채용 7일까지 접수...3월말 발표

NH농협은행은 상반기에 350명 규모의 6급 신규직원 채용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 및 IT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일반분야는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해당 지역 출신 지원자를 우대한다. IT분야는 지역 구분이 없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농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3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력이나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이 없다. 다만 IT분야는 정보처리(전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찾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1일 설을 앞두고 농협 광주유통센터를 방문해 명절 성수품 판매와 가격경향을 살폈다. 김 회장은 유통 최전방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은행 “행원 선발, 더 엄격한 기준 도입”

채용비리 사과문...“2015년부터 블라인드 방식...외압 작용 못해”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적발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광주은행 부행장보가 자신의 자녀 2차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사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 인지해 해당 임원과 인사

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했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고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 추천제 방식을 적용,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김으로써,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정태의 가능성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제거했다.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 없이는 전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2015년부터 이렇게 1, 2차 모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해 채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의 신입사원 채용절차는 대학 총장 추천을 받기 위해 광주·전남, 수도권 대학에 추천서를 발송한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총장추천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채용인원의 4~5배수 추천을 받는 다.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이 이뤄지며

대학 평균학점 B이상, 토익점수 700점 이상 등 서류전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1차 합숙(1박2일)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관은 은행 과장, 팀장, 부장 등 15~20명으로 구성한다. 1차 면접 결과를 합산해 채용인원의 2배수 정도가 인·적성 검사와 2차 면접 대상자가 된다. 2차 면접관은 부행장등 임원 4~5명이고, 이들의 면접점수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Best Practice(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수 기지개 켜는 현대·기아차

1월 판매 전년비 두자릿수 증가...기아차 해외판매 호조

현대·기아자동차가 1월 내수 시장에서 일제히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의 경우 현대차는 중국에서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기아차는 신차 투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1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1월 국내의 시장에서 모두 33만4217대를 판매했다. 이는 작년 1월 판매량(33만8948대)보다 1.4% 감소한 규모다.

내수(5만1426대)는 전년 동월보다 14.0% 늘었지만, 해외 판매(28만2791대)는 3.8% 줄었다. 해외 판매 감소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영향이 있던 중국시장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탓이다.

내수 시장에서는 그랜저(하이브리드

포함)가 9601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야만대는 5677대, 쏘나타(하이브리드 포함)는 5520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내수 승용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한 2만954대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1월 국내의 판매량은 모두 20만5126대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내수(3만9105대)는 전년 동월 대비 11.7% 늘었고 해외 판매(16만6021대)도 3.8% 증가했다.

기아차의 해외 판매가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중국에서 사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뒤로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생활 속 전력정보 한 곳에서 본다

한전 통합 서비스 오픈...전기요금·전기차 정보 등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김시호)은 다양한 전력 정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포털’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포털은 다양한 전력서비스 시스템들의 접속경로를 일원화 하고 통합 로그인을 구현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포털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파워플래너’, 전국 전력

수급 현황과 지역별 전력소비현황을 보여주는 ‘국가전력자원맵’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인근 전기차충전소 조회·길찾기 기능 등이 있는 전기차충전서비스(EVC) 등도 제공된다.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 위쪽 통합포털 메뉴에서 이 포털로 접속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